

한국의 불화 40권 완간

사찰 476곳 박물관 14곳의 3156점 답아...제작비 50억



국내 최대의 불화집이 완간됐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 스님)이 1989년부터 20년간 진행해 결실을 이룬 <한국의 불화> 전 40권이 그것이다(사진).

257x348mm의 큰 판형에 원색 도판 형식을 도입한 이번 전집(각 권 250쪽 안팎)에는 조계종 소속 476개 사찰과 14개 박물관에 소장된 각종 불화 3156점이 실려 있다. 이는 전국 사찰과 박물관 소장 불화 중

만만치 않은 예산은 이 사업 발원자인 석정(石鼎·중요무형문화재 118호) 스님의 선서화(禪書畵) 작품 판매와 외부 목자가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국고 지원은 2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위해 1989년 출범한 불화조사단을 통해 조사 역량을 축적한 다음, 1996년 통도사 본사편(상·하)과 직지사 본·말사(상·하)의 4권을 시작으로 매년 3~4권을씩 발간하다가 최근 국·공립박물관 편과 보유권까지 보충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불화 도록을 겸한 이 전집은 유형과 예경의식 절차에 따라 작품을 후불탱(존상 뒤에 봉안한 불화)·괘불(괘개그림)·보살탱·신중탱(각종 신중 그림)·각부탱(여러 쪽으로 나뉜 작품)·각단탱(각 단에 봉안한 불화)·진영(초상)·도량장엄(번류<幡類>)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각 불화마다 원색으로 전도와 부분도를 배치하고, 그에 대한 해설과 관련 논문을 게재했으며, 해당 사찰의 역사 또한 부기했다. 각 불화 명칭과 조성연대, 조성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작품 재료와 비용을 보시한 시주자도 밝혀 놓아 한국불교미술사 연구에도 큰 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진제 스님 상당범어 비디오·CD로 만나세요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의 범어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CD 등이 나왔다.

진제 스님이 최근 설한 안거 결제 범어와 각종 초경법회 범어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 5편과 '해월 선사 진제 선사의 오도와 전법' '운봉선사의 오도와 전법' '항곡선사의 오도와 전법' '경허 선사의 오도와 선법선양' 등 카세트 테이프, '진제선사 불교 TV 초경대법회' 실황 오디오 CD 등이 불교TV에 의해 제작돼 보급되고 있다. (051)746-4812



임연태 기자

“움직이는 것은 네 마음이다”

김영옥 박사가 푸는 화두의 세계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 뿐이다.”



화두를 만나다 김영옥 지음 프로네시스 | 9000원

영화 <달콤한 인생>의 오프닝이었던 이 말 듯 말 듯한 내레이션은 사실 <육조단경>에서 혜승 선사가 던진 화두다. '화두'란 불교용어로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잠선하는 수행자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는 부처나 조사의 파격적인 문답 또는 언행을 일컫는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야기의 첫머리'나 '문제의 실마리' 등의 뜻으로 두루 쓰이기도 하고 영화나 문학 등에서 '문제 제기'나 '환기' 역할로 종종 등장해 그다지 낯설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화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 책에는 선의 세계를 대표하는 100여 개의 공안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그저 역사 속 일화들을 나열해놓기만 한 이야기 모음이 아니다. 저자는 '간화선'이라는 선의 특별한 족보속에서 선사상을 탐색하면서 백척간두에 선 것과 같은 화두를 만나도록 유도한다.

저자는 다른 모든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화두도 기본 나는 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대로 공개된 논리와 사유법이 있으므로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단지 화두(공안)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학인들의 화두에 대한 재해석과 선사들의 계승도 곁들여 풀어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음악공양도 수행입니다”

우학 스님 친불가집 펴내

포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신행 이야기 등을 책으로 내 화제를 모았던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관음사 학장)이 이번에는 '음악책'을 냈다. 우학 스님이 쓴 시들이 아름답고 장중한 음악으로 만들어져 한 권의 친불가집이 '음악공양'이 된 것이다.

훈성4부나 여성 3부 등에 맞춰 지어진 일반 친불가 30여 곡과 친불동요 40여 곡 어린이합창곡 6편이 실렸다. 작곡은 관음사 신도인 영법향씨가 맡았다.

우학 스님은 책을 내며 “음악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책을 짓고 입장을 참회하는 불교 본래의 수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서출판 잠룡은 인연, 1만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진리를 말하고 싶으면 '법화경'을 펼쳐라

해경 스님 '법화삼부경강설' 전 10권 중 1·2권 간행

<법화경>과 소크라테스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플라톤이나 아인슈타인 혹은 일본의 과학자 유가와 히데키 와는?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동서양의 석학들의 이론이 <법화경> 강의에 동원된다면 그 강의의 스케일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법화경>에도, 여러 석학들의 이론에도, 각 분야의 인문학사에도 남다른 눈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해경 스님

50여 년간 <법화경>을 연구해 온 해경스님(무설정사 회주)이 '우주적 강의'를 담은 <법화삼부경강설> 총 10권의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각 권당 500여 쪽 분량으로 기획된 이 강설집의 1권과 2권이 먼저 세상에 나왔다.

'무량의경'의 내용을 담은 제1권은 서설에서부터 장중한 교향악을 듣는 듯하다. 초기불교에서부터 <법화경>이 설해지고 성립되는 과정과 전개과정 등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 풀어내면서 강의가 시작되는 것. <법화경>과 관련된 한국불교의 발전과정, 일본에서의 <법화

경>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화삼부경강설> 1권과 2권은 고려 대장경을 저본으로 한 한문경전을 먼저 수록하고 안진호 스님의 '구역법화삼부경' 번역부분을 실었다. 그 뒤를 이어 해경 스님의 '신역'과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전과 근대 석학의 해석 그리고 현대 언어 질서와 정서에 맞춘 해경 스님의 해설을 한



법화삼부경강설 1·2권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셈이다. 해경 스님은 <법화경>을 “우주 실상을 제대로 밝힌 경전, 제법실상의 진리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자타일체감을 체득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경전이다”고 소개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우리민족의 고대사 바로보기

심백강 박사, 한사군 지역 답사 기록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학자이자 동양학의 대가인 심백강 박사가 <황하에서 한라까지>에서 우리 민족은 조그만 한반도 땅이 아닌 광활한 중국대륙이었다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사고전서> 등의 다양한 중국사료와 수십번에 걸친 중국 현지 답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낱말이 밝혔다.

심 박사는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분수령인 한사군의 낙랑군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평양의 대동강 유역이 아닌 요서의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반도사관의 틀을 깨준 것”이라고 말했다.



황하에서 한라까지

심백강 지음
참봉은세상
1만3000원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북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절물 기차게 잘하는 법	청건	벗의마음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하루 10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
7	문없는 문, 빛없는 빛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8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9	꿈계 낚는 절집	삼인보	지안
10	무비 스님의 신명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북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언제나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범문집을 내지 않기로 유명한 활안 큰스님이 최초로 발간을 허락해주신 책. 대중의 무지를 깨우치는 활안 큰스님의 벽력같은 일갈!

활안 대선사 범문 | 김성우 엮음 | 양장 | 값 13,500원

우리 시대의 큰 스님 활산성수 대선사와 활안 대선사 선법문집

너희는 절에 뭐하러 가느냐?

저건너 산을 보라



“불법은 저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이 밖에 따로 구하지 마라. 구한 즉 고(苦)가 되나니라.”

난해한 선(禪)이 아니라 일상에 뿌리내린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을 확립한 것으로 유명한 성수 큰스님의 촌철살인 명법문집.

활산성수 대선사 범문 | 김성우 해설 | 양장 | 값 15,000원

